

광주전남중기청 '9월 동행축제' 활발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야시장 다양한 행사·먹거리, 상품 할인 판매 소상공인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이 추석 앞두고 9월 동행축제를 열어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돕기에 나선다.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 할인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명절 시즌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골목형상점가와 야시장에서 '2025년 9월 동행축제'가 열린다. 매년 5·9·12월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상승 효과를 특별히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동행축제는 전국 매출 총 4366억원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9월 행사 기간 전통시장과 야시장은 지역 특산품과 먹거리, 생활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도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전남대 상대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쌈으로 잇다, 맛으로 맞는다'는 주제로 9월 매주 금·토요일 야시장을 연다. '광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인 상추튀김을 판매하며 경품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다. 백운광장 골목형상점가도 9월 매주 금·토요일 '금토별빛야시장'을 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1시다. 남광주시장에서는 12일 '동행축제'에 이어 오는 26·27일 '가을바다 축제'가 진행된다. 무안 전통시장은 9월 매주 토요일 '캠핑 품은 향토골 야시장'을 열고 먹거리부터 공연, 베품시장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다. 나주 목사교을시장에는 오는 20일 '밤소풍콘'이 마련돼 캠핑크(캠핑+파크)를 즐길 수 있다. 운

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다. 9월 한 달 동안 동행축제가 아닌 지자체나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야시장도 있다. 무등시장 군분로 야시장은 9월 매주 토요일 '글로벌 토요일야시장'을 연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0시다. 봉선시장은 9월 매주 금요일 금요일야시장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0시다. 전남에서는 순천아랫장과 강진 병영시장이 9월 매주 금·토요일 야시장을 연다. 순천야시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강진 병영시장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즐길 수 있다. 강진 병영시장에서는 '강진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열어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 볼 수 있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 만큼 많은 지역민이 방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급수 등을 통해 강릉시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총력전

전국 저수지 저수율 65.9% 유지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최근 평년에 비해 부족한 강수량 및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공사는 11일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평년 대비 저수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에 간이 펌프 설치를 통한 물 공급, 인근 하천으로부터 물 양수 및 농수로 직접 공급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 저수지 127개소에 5400만 t의 모내기 용수를 공급했고, 8월 말까지 저수지 65개소에 700만 t 이상을 추가 공급했다.

이같은 선제 조치와 더불어 전국 누적 강수량이 960.1mm로 평년의 87.9%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5.9%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강릉시를 비롯한 영동지방에는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공사는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영동지방 누적 강수량은 497.4mm로 평년의 46.9%에 불과했고, 인근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 대비 36.6% 수준인 28.0%를 기록했다. 이에 공사는 하천 굴착, 관로 매설, 간이 양수기 설치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위험 수준까지 저수율이 낮아진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수해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 펌프 등 장비 13개소에 설치해 하루 최대 3만 7500 t의 농업용수를 공급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대구상의, 달빛철도 예타 면제 등 지역현안 공동 건의

제12차 달빛경제교류협의회 개최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와 대구상의가 달빛철도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역 경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양 상의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제12차 달빛경제교류협의회를 열고 지역 경제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날 협의회에는 양 지역 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해 달빛철도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신속한 추진·국비 반영, 신공항 건설 사업 조속 추진, 경제 관련 법안의 신중한 검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상의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내수 침체로 기업이 한계 상황에 놓인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상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안의 잇따른 개정·입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중히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 입법을 병행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광주와 대구 경제계가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달빛철도 조기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이전·대구 통합 신공항 건설 등 양 지역의 핵심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청년이 모이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그동안 달빛경제교류협의회는 양 지역의 공동 의제를 개발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경제계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달빛경제교류협의회는 1998년 광주상의 의원단이 대구상의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2018년 공식 협의회체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보완,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양 지역 경제계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T "올 추석 선물 과일·소고기 선호도 높아"

구매 평균 예산 16만 3000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선물세트 중 과일류와 소고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aT가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지난 8월 25~28일 3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의향, 추석 선물세트 구매 예정 품목 및 예산, 구매 시기, 구매처 등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올 추석 구입 의향은 45.8%로 전년 추석(47.1%)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다. 추석 선물세트 구매 의향 상위 품목으로는 사과(17.3%), 과일 혼합세트(17%), 소고기(15.8%) 등이 꼽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조사 당시와 비슷한 결과로,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과일 혼합세트가 2위로 올라섰다.

추석 선물세트 구매 예산은 평균 16만 3000원으로 전년(17만 1000원)에 견줘 8000원 하락했다. 금액별로 5~10만원이 31.7%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만큼, 가성비 선물세트 수요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성수품 구매 의향 상위 품목은 소고기(30.3%), 사과(15.1%), 나물류(14.4%) 순으로 집계됐다. 성수품 구매 평균 예산은 20만 6000원으로 지난해 추석(20만 2000원)보다 4000원 증가했다. 소비자 구매처로는 선물세트와 성수품 모두 대형마트가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선물세트는 온라인 전용몰, 성수품은 전통시장이 각각 2위 구매처로 지목됐다. 선물세트 및 성수품 구매 시기는 연휴 1주 전이 40%대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GES e스포츠' 대회 광주 소방관들의 깜짝 변신 e스포츠로 터뜨린 숨은 열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0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GES 위메이드 이스포츠 달려라 소방관' 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대회는 광주 지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동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에는 지역 소재 7개의 관할 소방서, 35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선수로 참가했으며, 100여명의 소방서 직원들이 응원의 열기를 더했다. 게임 종목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아이템전으로, 접전 끝에 관산소방서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준우승은 북부소방서, 소방본부팀이 3위를 기록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위메이드 이스포츠'의 취지에 맞게 이번 대회가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축제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이스포츠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청년 한부모 가구 비중은 높고 소득은 전국 미달

6천가구 이상이 홀로 자녀 키워

광주·전남지역의 2030세대 청년 한부모 가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상시 임금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는 2023년 기준 3만 2190가구였다. 이 중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구'는 2971가구(9.2%)로 집계됐다.

한부모 가구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거주하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다른 한 부모가 사망·이혼 또는 미상인 경우를 뜻한다. 광주 한부모 가구 중 1832가구(61.7%)는 자녀가 1명, 900가구(30.3%)는 자녀 2명, 239가구(8.0%)는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유자녀 청년 가구는 3만 4744가구, 한부모 가구는 3241가구(9.3%)였다. 한부모 가구를 자녀 수로 분류하면 자녀 1명(1834가구·56.6%), 자녀 2명(1133가구·35.0%), 자녀 3명(274가구·8.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유자녀 청년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8만 1452가구로 전체 청년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의 청년 한부모 가구 비중이 전국 대비 각각 1.6%포인트(p), 1.7%p 높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체 한부모 가구 비중이 타 지역 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소득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청년 연령층 등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올 가을 꽃게 위판량, 최근 10년 중 '최다'

전어도 풍년 가격 크게 떨어져

올해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꽃게 위판량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어획량이 늘면서 위판가격은 10년 평균 가격보다 17.7%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11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의 꽃게 위판량은 3690t(톤)으로 최근 10년 같은 기간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꽃게 어획량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양으로, 고수온에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작년(2207t)보다 67.2% 많은 수준이다. 꽃게 위판량은 2016년(1673t)부터 꾸준히 늘어 2023년 3484t을 기록했으나 작년엔 2207t으로 급감했다. 올해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8월 20일이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올가을 꽃게가 풍년인 이유는 서해 저층의 차가운 물층이 작년보다 연안과 남쪽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바다에 서식하며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꽃게가 바다로 들어온 차가운 물을 피해 어장이 있는 연안으로 올라오면서 어획량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에는 이 차가운 물의 세력이 약해 꽃게가 어장으로 밀집되지 않았다고 수협중앙회는 분석했다. 아울러 아직 꽃게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 꽃게 어획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위판가격도 안정된 모양새다.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평균 위판 가격

은 1kg당 6430원으로 10년 평균 위판 가격(7816원)보다 17.7% 낮다. 다만 올해 위판 가격은 어획량이 대폭 줄어든 작년(6266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올해 꽃게의 품질이 좋아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가을 전어 가격도 작년보다 떨어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어 산지인 서천에서 전어 평균 낙찰가는 이달 기준 1kg당 1만4300원으로, 작년 동기 평균 낙찰가(3만 1850원)보다 55.0% 싸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경매가격을 보면 전어 상등급의 이달 평균 경매가격은 1kg당 5385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2% 저렴하다. 지난 7월부터 지난 8일까지 잡힌 전어는 407t으로, 작년 동기 어획량(209t)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수온이 작년처럼 크게 오르지 않아 어획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전어는 염도가 낮은 바닷물을 좋아하는데, 올해 우리 바다에 비가 많이 내려 전어가 물리면서 어획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고수온과 적은 호우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도 올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금리(국고채 3년)	2.420 (-0.010)
환율(US D)	1392.85 (+6.25)
<small>(오후 5시 03분 기준)</small>	